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4년 6월

선교편지 제 176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의 관계가 말씀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즉, 가정이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족끼리 지지고 북으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부부가 되고, 너무나 쉽게 남남이 되는 가운데, 밝게 자라야 하는 자녀들이 가정을 통하여 심한 상처를 받고, 같은 잘못을 배우고 반복하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하고 인구는 수백 명에 불과한, 전 세계의 주권 국가 중에서 가장 작은 교황이 통치하는 신권 국가 '바티칸 (Vatican)'을 제외하고, '이혼'이 불법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필리핀이 유일합니다. 국민 전체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정치인들보다 더 강력하여 '이혼' 뿐만 아니라 '임신 중지와 피임'에도 성경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 결과로 본래의 거룩한(?) 취지와는 다른 특이한 모습의 가정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필리핀 가톨릭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는 논쟁이 필요 없고,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부부의 이상적인 원형은 성삼위의 완전 무결함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십자가를 통한 피의 계약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이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합법화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 하원에서 부부가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로 나라 곳곳에서 찬반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상원에서도 같은 투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혼 합법화' 법안 통과가 그렇게 쉬어 보이지 않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톨릭 주교가 상원을 향하여 '이혼 법안을 다시 생각하라'고 경고하며, '이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이혼을 조장함으로써 사회 결속력을 무너뜨리고 도덕적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이곳에서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혼인 무효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한번 결혼한 부부는 영원한 부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10)

따라서 '이혼'이 불가한 이 곳의 가정은 매우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서 매우 쉽게 발견합니다. 우선,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가정이 매우 많습니다. 본인들을 남편과 부인의 법적 관계가 아닌, 'Partner'로 주저없이 밝힙니다. 그러다가 헤어져야 할 사유가 생길 경우에는 '이혼'과 같은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이, 아주 쉽게 남남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도 이러한 Couple 이 많은데, 교적부에는 남편과 부인이 아닌 'Partner'로 기록합니다. 이러한 생소한 관계 때문에 아직도 남편과 부인으로 부르는 실수를 종종하는데, 자녀가 있음에도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혼을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함께 살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한 집을 떠나 각각 다른 가정을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같은 지역 내에서 부인은 다른 남자와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사는 가정들입니다. 이러한 혼돈의 결과는 오로지 자녀들이 떠 안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새롭게 맺은 관계를 아빠의 'Girl Friend', 엄마의 'Boy Friend'라고 부르며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 지, 한 가정 내의 얽힌 관계를 이해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친 부모인지, 누가 친 자식인지 구분이 안되게, 태연하게 서로 얽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문화 인류학 교과서에나 볼 수 있는 '군혼 (Conjoint Marriage)' 이나 '복혼 (Polygamy)'의 새롭게 변형된 모습이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가 결혼의 가치를 하나님 뜻대로 애써 지키려고 하는 가톨릭 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Irony 합니다.

매년 어버이 주일이 있는 5월을 지날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가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심으로 천지창조를 마무리하셨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험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정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였고,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교회와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눅 23:28)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마띠 은혜교회'의 건축을 시작한지 벌써 36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와 비교하여 대지 면적이 3배나 되고, 예배당 외에 친교실과 교육관, 그리고 교역자 사택을 건축하는 큰 공사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20여명의 작업자들이 땀을 비 오듯 쏟으며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축하는 '마띠 은혜교회'에 집중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작년 10월부터 집이 아닌 '디고스 예일교회 사택'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던 현지 교역자가 교회 근처에 새롭게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디고스 교회 사택에 조그맣게 살림을 차렸습니다. 비록 세 발자국만 걸으면 방과 부엌을 넘나들 수 있는 좁은 공간이지만, 마띠 은혜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이 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셋 방에 사는 듯한 기분도 들고, 마치 집이 아닌 야외에 텐트를 치고 사는 듯한 기분도 듭니다. 선풍기 1대만으로도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로만 듣던 'Minimalist Lifestyle'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고스 교회 사택에 사는 경험을 토대로, 한창 건축 중인 '마띠 은혜교회'의 사택을 초안과 다르게 많은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제 예배당, 친교실, 교육실의 큰 공사를 마치고, 사택 건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사택이 지어져 가는 상황을 매일 보고 있지만, 마지막 모습이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건축을 마치는 그 날까지, 더위 가운데 수고하는 작업자들에게 아무런 안전 사고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2)**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마띠 은혜교회 건축을 위하여
3.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5.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